# 사진으로 다시 새긴 천년 마애불상군

**장명확 '마애불상군(群) 돌 · 부처를 만나다' 展**
**서울 나우갤러리**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마애불상군을 테마로 한 사진전이 열린다. 10년 넘게 우리나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마애불상군을 카메라에 담아온 장명확 사진가는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나우갤러리에서 개인전 '마애불상군 돌 · 부처를 만나다' 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경주 탑곡 삼존불을 비롯한 마애불상군 흑백사진 20여 점이 전시된다.

"마애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마애불이라는 것이 단순히 돌에 새긴 그림(불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천 년 이상의 오랜 시간을 견뎌온 것으로 선조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마애불 앞에 서서 그 오랜 염원과 시간을 카메라로 발라내려고 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석불 앞에 서면 우리들의 선조들이 마애불 앞에 서서 많은 기원을 했다는 사실과 천 년이란 긴 시간이 불보살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숙연해지고 감흥은 더욱 커진다."

마애불은 순수하게 불교적 신앙의 차원에서 조성된 것도 있지만 많은 마애불에는 불교적인 신앙과 함께 바위신앙, 자연신앙, 민속신앙 등 여러 무속신앙적인 요소가 함께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불교가 전해지기 이전의 여러 신앙적 요소가 함께 하면서 민중들의 간절한 기원이 깃든 신행의 공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의식이 깃들어 있어 종교와 예술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오늘날의 자연미술이나 환경미술적 시각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사진가의 카메라가 담아낼 만한 소재로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마애불은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마애불상군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알리려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장 작가가 마애불 중에서도 군을 이루고 있는 마애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마애불상군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형식미와 좀 더 많은 대중에게 마애불상군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다. 마애불상군에는 부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살은 물론 사천왕과 공양자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바위라는 자연적 소재에 그려진 불보살의 모습은 신앙의 표출이면서 예술적으로 들여다 볼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서방정토를 바라보는 듯한 먼 시선의 칠불암 석불, 흘러가는 구름을 이고 산인 듯 나무인 듯 서있는 경주 탑곡 삼존불, 거대한 바위 속에 나란히 앉은 따뜻한 두 부처, 한 편의 탱화 같은 부처님과 사천왕들…. 사진으로 만들어낸 또 하나의 마애불이다. 색깔을 버리고 흑과 백만으로 새겨낸 형식적 변환에서도 또 다른 마애불을 볼 수 있다. 장명확이 다시 새겨낸 마애불이다. 장 작가는 숲 속에서 만난 마애불에서 천년을 보려 했고, 그 천년 속을 지나간 우리의 지난날을 보려한다.

"지금도 마애불을 보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 마애불에 천년 만년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오늘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마애불이 나의 시각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한 분의 부처님이 아닌 여러 불보살이서 조형적으로도 사진적 구도에 부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간직하고 있는 마애불상군이 이제 내 카메라를 통해 세상으로 나오려 한다."

장명확 사진가는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졸업. 1988년 주간스포츠 사진부에서 사진기자로 일했다. 보도, 출판, 방송 등 여러 분야에서 불교 관련 사진을 찍어왔으며 G20 정상 증정을 위해 문화부에서 간행한 화보집에서 불교 분야의 사진을 담당했다.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을 마치고 원광대학교, 동방불교대학교, 중국 연변대학교 등에서 사진학을 강의했다. 〈붓다의 제자 비구니〉, 〈깨달음이 있는 산사〉, 〈길 위에서 삶을 묻다〉 등 40여 권의 도서에서 사진 작업을 했다. 특히 월간 〈불교와 문화〉, 진각종, 원불교, 백양사, 불교 방송 등과 함께 불교 관련 촬영에 힘쓰고 있다. 월간 〈불교와 문화〉의 사진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15년 넘게 사찰을 찍고 있다. 12017년 8월에는 첫 사진전인 〈달빛 아리랑〉을 개최했다. 전국을 돌며 마애불상군(群) 사진도 오랫동안 찍어왔다. (02)725-2930.

# 내면의 소리로 그리는 힐링 만다라


내 소리 만다라 작품5.

**'내 소리 만다라치유' 출판 · 전시**
**출판기념회 8월 20일**
**전시 8월 20~22일**

현대인의 심신은 고단하다. 그 고단함을 그림으로 치유하는 책이 출간됐다. 김민찬 박사의 〈내 소리 만다라치유〉다. 저자는 8월 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2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책 속에 소개된 그림들을 전시한다.

〈내 소리 만다라치유〉는 내 소리 심신치유법 중 하나로 내면에서 나오는 자신의 소리를 내면서 백지 위에 그림을 그려 나가는 그림명상 치유법을 소개한다. 내 소리 만다라는 그림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남녀노소 누구나 그릴 수 있으며, 세상에 단 한 점밖에 없는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게 됨으로써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다. 김민찬 박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생생한 변화와 경험을 보며,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내 소리 만다라치유' 를 알리기 위해 출간했다.

현재, 월드마스터위원회 위원장인 저자 김민찬 박사는 2004년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제문화활동을 통해 '문화와 예술로 하나 되는 세상' 이라는 비전과 가치를 실현해왔다. 그 과정 속에서 현대인들의 내면에는 문화와 예술로서 치유되지 않은 수많은 고민과 상처가 있음을 알게 됐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내면이 건강해지며,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내 소리 심신치유법을 학문적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사용된 '만다라' 는 치유를 위한 그림이며, 외국에서는 이미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브 융(Jung)에 의해 심리치유기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미술 갤러러처럼 내소리심신치유연구회 연구원들과 정기 강좌에 참여한 회원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그리고 만다라를 그리면서 느꼈던 소감을 일부 발췌해 기록했다.

△2부는 내 소리 만다라치유의 정의, 효과와 치유의 원리, 그리고 만다라의 기원과 상징 등 '내 소리 만다라치유' 의 이론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3부는 연구사례다. 21명의 참여자들은 5개월간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총 20회기에 걸쳐 만다라를 그렸고, 각 회기별 소감과 프로그램을 마친 후 체험 소감을 기록했다.

김 박사는 내 소리 심신치유법을 정립하고 체계화하여 '내 소리 심신치유가 성인 스트레스 감소 효과에 미치는 영향' 과 '내 소리 만다라치유가 중년기 불안 및 우울과 위기감 극복에 미치는 효과' 등 3편의 학위논문을 저술했다. 이번 책은 위의 논문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070-4189-7771(내소리심신치유연구회).

박재완 기자

## 國博 불교회화실 교체

**8월 6일부터…'깨달음 향한 여정'**
**마곡사 괘불 등 공개**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이 새로운 성보문화재로 관람객을 맞는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8월 6일부터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의 전시품을 교체해 선보인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 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는 가르침이 오가는 설법(說法)의 자리에 함께 했던 부처와 보살 · 신중의 이야기, 깨달음에 정진했던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불교회화와 조각, 사경(寫經) 등이 공개된다.

가르침을 전하는 설법의 공간에는 모란꽃을 든 아미타불의 귀한 가르침을 듣기 위해 사천왕을 비롯해 제자, 보살, 천자(天子)와 그들이 이끄는 무리가 모여 있다.

꽃을 든 부처의 모습은 '공주 마곡사 괘불' 처럼 연꽃을 들어 가르침을 전했다고 하는 석가모니불한테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꽃을 든 아미타불은 보기 드문 독특한 도상이다.

이와 더불어 석가모니불의 설법에 담겨 있는 심오한 교리와 가르침을 정성스레 옮겨 적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 요약해서 표현한 고려시대 '법화경 변상도(사경)' 도 함께 전시된다. 변상도 속에서 석가모니불의 설법 모습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불(成佛)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중생 구원을 위해 또 다른 깨달음의 길을 걷는 보살을 그린 '지옥의 중생을 구원하는 지장보살과 시왕' , 중국에 선종의 가르침을 전한 '달마대사 진영' , 인도 승려로서 원나라를 거쳐 고려에 가르침을 전한 '지공화상(指空和尙) 진영' , 지공의 선법(禪法)을 이어받은 '무학대사 진영' 등 관련된 21점이 전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깨달음을 향해 기나긴 여정을 떠났던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문화재를 통해 들여다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은 8월 6일부터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 교체 전시를 진행한다. 사진은 전시되는 공주 마곡사 괘불.


